해남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한다

‘기업도시 솔라시도’ 최대 3GW규모 50조 투자 예상…지역민 관심 집중

LG창업주 손자 참여 ‘스톡 팜 로드’ 주도…전남도와 전력 확보 등 협약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최대 3기가와트(GW) 규모로, 최대 350억 달러(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성사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추진중인 데이터 센터의 약 세 배 큰 규모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 지사 등 투자유치 관계자들은 샌프란스시스코 등에서 투자그룹인 스톡 팜 로드(Stock Farm Road)측과 해남 기업도시 내 데이터센터파크에 최대 3기가와트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톡 팜 로드’ 그룹에는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Brian Koo)와 런던 및 요르단에 기반을 둔 투자사 BADR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아민 바드르-엘-딘이 공동 창립자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직접 해남 기업도시를 찾아 전남도 관계자 등과 현장을 둘러봤고 ‘스톡 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Fir Hills)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인근 기업도시 내 구성지구에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과 RE100 데이터센터파크를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해남 구성지구 데이터센터파크가 해당 투자 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으로, 전남도가 미래 산업 전망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내 데이터센터 부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낸 점 등이 대규모 투자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애초 53만 7000㎡(16만평)이던 구성지구 내 데이터센터 부지를 101만 7000㎡(31만평)으로 늘리는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정확한 투자 규모·예상 부지 등은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남도와 미국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MOA)으로 이어지고 투자사의 토지 매입이 시작되면 구성지구 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언론 등에서는 ‘스톡 팜 로드’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은 전력 및 수자원 확보,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평화연대’ 출범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가 19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광주평화연대’로 조직을 전환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평화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 60여개 단체가 모여 자주 평화 통일 운동을 펼치기 위한 기구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덕수 “비상계엄 관여하지 않았다” 탄핵기각 요청

1차 변론, 증거 채택·조사·최후진술 90분만에 종결… 선고일은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는 못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90여분만에 종결됐다.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공지로 전달된다.

한 총리는 헌재 재판정에 나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위헌이라고 밝힌 국회의 소추이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탄핵 쟁점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210명 채용

지난해보다 2배 확대…상반기 195명·하반기 15명

광주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210명을 채용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19개 직렬 195명, 하반기 6개 직렬 1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105명보다 2배 증가한 규모로,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준공과 2단계 시작,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01명, 기술직군 93명, 연구·지도직 16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0명, 9급 184명, 연구사 15명, 지도사 1명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5명, 기술계 고졸자 3명을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

상반기 시험은 3월 24~28일, 하반기 시험은 7월 21~25일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 필기시험은 6월 21일, 하반기는 11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8월과 12월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험인사정보’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윤석열, 20일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자신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며 ‘구속기간 도과 후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19호

보성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보성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및 구역·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보성강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나.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순천시, 곡성군 일원(국가하천 보성강 46.80㎞)
다. 계획수립기관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라. 계획내용 : 보성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사항 등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5. 02. 20.(목) ~ 2025. 04. 03.(목), (30일간, 토 ·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보성군(안전건설과, 문덕면사무소), 순천시(기후에너지과, 송광면·주암면 행정복지센터), 곡성군(환경과,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목사동면·죽곡면·오곡면사무소)
다. 정보통신망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ysg/web/main.do),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라. 관련자료 : 하천기본계획 관련서류 및 토지편입조서(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계획하천	시군	일 시	장 소	대상 읍·면·동
보성강	보성군	2025. 03. 05.(수), 10:00	문덕면사무소	문덕면
	순천시	2025. 03. 05.(수), 14:00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주암면·송광면
	곡성군	2025. 03. 14.(금), 10:00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목사동면·석곡면
		2025. 03. 14.(금), 14:00	죽곡면사무소	죽곡면·오곡면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시기 : 2025. 02. 20.(목) ~ 2025. 04. 10.(목),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방법 : 공람장소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박씨낙촌공후좌랑공파보
편찬안내

밀양박씨일재공파
密陽朴氏駱村公后佐郎公(逸齋公)派譜를 편찬코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수단(2차) : 2025. 06. 30까지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지하오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호연락 참여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연 락 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70-38
총무이사 박 인 철
(010-3480-0545)
2025. 02. 13.

밀양박씨낙촌공후좌랑공(일재공)종중
회장 박 영 호 (010-3643-1771)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유상무(490611-1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다시로 170-27

피상속인 망 유상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3222호로 신청하여 2025년 2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20일

• 상속인 : 윤복례(581020-2XXXXXX) 나주시 다시로 170-27
• 신고기간 : 2025. 2. 20. ~ 2025. 5. 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윤복례의 주소